화두 정진

뵌 큰스님

님 (평화통일사 회주)



◇1975년 고암스님이 조계종 종정당시 5관짜리 동종 마련해주며 기도를 격려했다.

의 방문은 너무나 뜻밖이었는데 정작 놀란 것은 고암님이 준비해 온 종이였다. 다섯 관 짜리 작은 종이었다. 메걸 치면서 기도 하게나." 종정스님이 친히 종을 들고 문해 기도를 격려하니 힘이 절로 솟았다. 그 종을 밤나에 달아 놓고 새벽과 저녁마다 두드리며 통일염원 기를 했다. 어느 날 고암 스님을 다시 만났을 때 "종은 잘는가?"란 질문을 받았다. "예, 그런데 종이 너무 작아 다섯 관 짜리를 밤나무에 달아 놓고 치자니 남들 보기 망해서… 고암 스님은 말을 잘랐다. "아닐세. 종이 크고 좋은 것은 아니지. 작은 종이라도 자네의 원력을 담서 일심으로 치면 삼천대천 세계가 다 진동을 한다네. 지런히 정진하게. 내가 여유가 되면 삼천리 강산의 통을 위해 삼천 관 짜리 대범종을 하나 조성해 줄 테니 지런히 정진하게." 그러나 고암 스님은 그 약속을 지키못하고 원적에 들었다.



◇평화통일사는 파주 · 문산지역 군인들이 즐겨찾는 도량이다. 일선스님이 군불자들에게 1인1자 법화경 사경을 지도하고 있다.

일선스님은?

어린 시절 일본 아이들이 괴롭혀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어느 날 동네에 나타난 일본 순사들이 미워서 흙을 던졌다가 실컷 맞기도 했다. 1932년 경북 달성에서 태어나 46년 달성군 유가사로 출가했으니 세속에서의 추억이란 것은 별 것이 없다. 절 집에 들어와서 해방과 6.25를 겪었다. 6.25 이후에는 대구에서 넝마주의 아이들을 모아 자활운동을 하기도 했다.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정진하며 일타 스님과 인연을 맺었고 1972년 임진각에 짐을 풀고 통일염원 기도와 법화경 일인일자 사경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4년에 성자 이차돈 선양회를 조직해 현창사업을 전개했다. 파주 경승실장과 불고연합회장 등의 소임도 지냈으며 서부전선 군불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고암, 일타스님 각별한 인연

서부전선 군포교 활동 전념

일타스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형제의 인연을 맺었던 일타스님은 늘 일선스님에게 '통일보살'이라 불렀다. 전방 부대를 다니면서 포교를 하고 수행일념의 초점을 통일에 맞추고 있는 일선스님이야 말로 통일보살이라는 것이었다. 한 번은 이런 편지를 보내 왔다.

"나는 일선당을 동생으로 삼은 지가 오래 되었다.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법담을 나누며 그 용심을 볼 때 보살행이 분명하다. 서부전선에서 25년이나 걸망을 내려놓고서, 군 관 민을 가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와 전법과 서면포교를 함에 몸을 아끼지 않는다. 피를 뽑고 뼈를 갈아 법화경을 사경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인일자의 사경기도를 권하며 법풍대양(法風大揚) 하니 이는 필시 보살의 행이다…"

만날 때마다 "보살" "통일보살"이라며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던 일타 스님은 "내 자네에게 큰 말을 한 마리 선물해야겠어. 큰 말을 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포교하고 정진하도록 말이야"라고 했었다. 물론 말은 차량을 뜻하는 것. 하지만 일타 스님 역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입적했다.

"두 분 큰스님이 나에게는 참으로 많은 힘을 주셨지. 그렇게 도탑게 격려 해 주신 힘으로 지금껏 이 도량을 지키는지 몰라. 나는 제1종 생활보호대상자야. 다달이 정부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포교에 보태지."

스님에게 있어 가난은 친근한 도반이다. 절 짓는 불사에 속가의 문중 돈을 끌어다 썼다. 한 집안에 스님 한명이 나면 9대가 복받는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일요일을 맞아 절에 찾아오는 장병들에게 떡 한 접시와 라면 한 그릇밖에 내놓을게 없는 것은 늘 미안하고 가슴아픈 일이다.

일선스님은 불교는 산중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누차 강조한다. 산중에서 불교를 구하는 것은 토끼 머리에서 뿔을 찾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단언한다. 불교는 세간이 있다는 것이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뒤엉켜 있는 이 세간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곳이므로 세간에서 불교를 구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소를 찾아 길을 들이고 마침내 소로부터 자유로워 진 다음에는 저자거리에 들어 중생과 함께 어울려 그 법향을 전하는 것이 '심우도'의 가르침이듯.

일선스님은 바로 통일이라는 이름의 소를 찾고 있다. 보일 듯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소의 엉덩이짝을 30년이 넘도록 찾고 있다.

"소를 찾아 길들이겠다는 염원이 금생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와서라도 그 소를 찾아야지. 나도 통일의 소를 찾는 일에 혼신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어. 물론 금생에 통일을 보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데 난 그 소망이 이뤄지리라고 믿어."

그래서일까? 수년 전 정주영씨가 소 떼를 몰고 북으로 향했을 때, 통일로에서 목탁을 치며 하염없이 염불을 하던 일선 스님의 모습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글=임연태 기자 ytim@buddhap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nso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덕신스님

늘 단정한 두루마기차림에 행전을 차고 투명한 안경을 쓴, 언뜻 보면 비구니스님으로 착각 할 수도 있는 모습이 덕신스님의 첫 인상이다. 몸가짐이나 말소리가 차분하고 그 품성이 고요해서 일생을 계율에 의지해 사는 율사스님과 다름이 없다.

흔히들 덕신스님은 본사가 조계사라고 말하곤 한다.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조계사에서 그 모습을 감추지 않는 까닭이다.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1번지'라고 한다. 그만큼 종단의 행정이나 교육, 포교, 사회, 문화의 모든 일이 조계사에 위치한 총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로 인해 조계사 자체가 갖는 상징성에 기인한 별명인 것이다.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늘 번잡함이 끊이지 않고, 일과 사람이 얽혀 바쁘게 돌아가는, 분주한 곳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덕신스님이 10여년 세월동안 터잡은 것은 일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산사를 품고 산다. '입산(入山)'이라는 말이 출가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이유가 출가의 목적지인 절이 산에 있는 까닭이



고, 산은 대다수 스님들의 첫 출발지인 동시에 언제나 수행의 근본자리며 마침내 생을 마감해야 할 출가자의 고향인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덕신스님과 자리를 하다보면 스님도 마음속에 산을 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사무실과 방에 늘 차를 준비해 놓고 산에 사는 스님들보다 오히려 더 차를 즐겨 마시고, 때때로 대화의 틈틈이 산승의 향기를 짙게 풍기곤 한다.

조계종의 포교국장을 시작으로 문화, 사회 등의 소임을 줄곧 맡아오다가 지금은 총무원 총무국장의 소임을 보는 스님은 일면 행정승일 수 있다. 출가 승려의 입장에서나 종단사정에 관심깊은 불자의 시각에서도 스님들의 긴 행정직 소임이나 도시생활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덕신스님은 스님을 아끼고 존경하는 출 재가의 주변인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스님이 수행의 인연을 더 깊이 맺어서 훌륭한 도인이 되어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법맥을 잇는 우리 불교의 큰 동량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혹 도시생활에 발목을 잡혀 큰 뜻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덕신스님이 조계사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스님의 도시생활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종단의 특수포교 분야에서 그 역할이 지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봉사와 포교를 선도하는 '원심회'와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 및 보급을 맡고 있는 '풍경소리'는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심의 힘이 그 든든한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강원도, 충청도 등 원근을 가리지 않는 교도소 법회활동과 청년회, 대학생 등 청년불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각별하다. 이같은 법회와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덕신스님을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다. 스님은 이미 보통 스님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관심을 아끼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스님들을 모아 포교와 전법의 인연을 만들어가곤 한다. 진지하고 쉼없는 스님의 보살행에 주변의 선후배 도반스님들도 가히 작은 동참을 사양할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중에 어느 덧 포교의 일선에 서게 된다.

조계종의 총무국장으로 종단 및 불교계의 주요 행사에 진행과 사회를 맡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덕신스님은 늘 수수하고 소탈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행사를 진행할 때는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허

긴 행정 소임에도 산승의 향기 가득

'원심회' · '풍경소리' 버팀목 구실

용을 않아 늘 단정하고 깔끔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 실수가 없다. 일을 준비함에 혹 토론이나 논쟁이 있어도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이야기를 정리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뿐, 쉬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덕신스님은 언제나 바쁜 일정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개인사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종단의 주어진 일속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의 불자들과 신행모임의 법회와 행사를 돕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스님은 보살심을 가진 공인으로 살아가는 한 전형을 보여준다.

근래에 생긴 덕신스님의 카페에는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는 스님의 흑백사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출가스님의 은은한 수행상과 정진의 일념이 스님의 이미지를 담백하게 전달한다. 이곳은 덕신스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 잔잔한 삶의 인연을 담담하게 나누는 곳이다. 스님이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따로 홍보를 한 일도 없는데 알음알음 가입한 회원이 짧은 기간에 이미 백명을 넘기고 있다. 법당에서 현장에서 나누지 못한 스님과의 교감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때로 스님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투정도 하면서 젊은 네티즌들이 스님과 불법의 인연을 곱들여 나가는 열린 법당이며 도량인 것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新構!!!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ㅁ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미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ㅁ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 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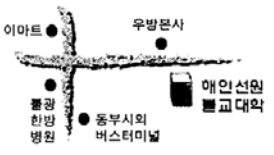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종합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안 평 불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 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 (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성합장